

## Research Article



# 경기지역 IT 분야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소비가치의 관계

정지은<sup>1</sup>, 김성은<sup>2</sup>

<sup>1</sup>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sup>2</sup>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health functional food selection attributes, and consumption values among workers for information technology in Gyeonggi area

### OPEN ACCESS

Received: Nov 15, 2019

Revised: Jan 21, 2020

Accepted: Jan 22, 2020

#### Correspondence to

Sung-Eun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00  
Cheongpa-ro 47-gil, Yongsan-gu, Seoul 04310,  
Korea.

Tel: +82-2-2077-7722

E-mail: sekim@sookmyung.ac.kr

© 2020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ORCID iDs

Ji-Eun Jung

<https://orcid.org/0000-0001-9865-5096>

Sung-Eun Kim

<https://orcid.org/0000-0002-1472-2405>

#### Funding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s (1-1903-1319).

#### Conflict of Interest

There are no financial or other issues that might lead to conflict of interest.

Ji-Eun Jung<sup>1</sup> and Sung-Eun Kim<sup>2</sup>

<sup>1</sup>Major in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sup>2</sup>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ttributes of health functional food (HFF) selection, and consumption values for information technology (IT) workers, and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lection of HFF to improve health by making the right choice of HFFs.

**Methods:** Three hundred forty IT workers in Gyeonggi a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low or high job stress group. The differences in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attributes of HFF selection, and HFF consumption values were investigated,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HFF consumption val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levels and the HFF selection attributes were analyzed.

**Results:** Job stress levels were high in those IT workers with a length of service < 5 years ( $p = 0.013$ ). The group with lower job stress levels had a higher tendency to consider the ingredients contained in HFF products ( $p < 0.001$ ), and their efficacy ( $p = 0.047$ ). They also showed greater emotional value for a sense of security from consuming HFFs to stay healthy ( $p = 0.047$ ). The group with higher job stress levels had greater epistemic value in that their choice of HFFs differentiated them from the other workers ( $p = 0.036$ ). Higher job stress was associated with less consideration of the intrinsic attributes such as ingredients and efficacy of the HFF selection attributes ( $p = -0.113$ ), emotional value of the HFF consumption values ( $p = -0.136$ ), and the functional value such as practicality, price, and safety ( $p = -0.134$ ).

The job stress level influenced the intrinsic attributes through the functional and emotional values, demonstrating that the functional and emotional values had appropriat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levels and intrinsic attributes.

**Conclusion:** Education needs to be provided for workers to relieve job stress and improve the functional and emotional values, which contributes to choosing the appropriate HFFs.

**Keywords:** workers, job stress, functional food, food selection, consumption

## 서론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 정의되고 있다 [1].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국민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기능식품의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4]. 특히 직장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의 잘못된 식습관, 운동부족 및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4,5]. 그러나 직장인들의 주된 건강기능식품 섭취이유가 피로회복 및 질병예방임에도 불구하고 [6], 지인이나 매스컴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잘못된 인식과 정보 획득 경로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7-9]. 그러므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선택 시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10], 정신건강 상태, 가치관 및 관심도가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11], 식품 관련 측면에서는 제품이 가진 선택속성이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12]. 먼저 정신건강 상태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대 직장인들은 과도한 업무와 대인관계 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에 놓여 있으며, 이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업무 수행능력을 떨어트리고 [13], 나아가 직무스트레스는 건강상태를 위협하기도 한다 [14,15]. 특히 IT 분야 직장인들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빠른 신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지나친 직무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이들의 신체적 질병과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대책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6].

선택속성은 사람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상품의 특성을 의미하며 의사결정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17].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분, 효과 등의 내재적 속성과 포장 디자인, 광고 등의 외재적 속성으로 분류된다 [12]. 사람마다 각 속성에 부여하는 중요도가 다르며 각자 추구하는 방향과 관련된 속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18]. 한편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와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IT 분야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비가치는 소비자의 사고 및 행위를 이끄는 판단기준의 집합으로, 소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욕구이다 [19]. Sheth의 소비가치 이론에 따르면 소비가치는 기능적 가치, 상황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인지적 가치로 구성된다. 기능적 가

치는 제품의 기능적, 실용적, 물리적 특성에 의해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이며, 상황적 가치는 특정한 상황이나 물리적 환경에 의해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이고,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이미지 및 사회적 집단과 제품이 관련하여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을 일컫는다. 또한 감정적 가치는 제품이 특정한 감정을 일으키거나 감정상태에 영향을 주어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을 뜻하고, 인지적 가치는 호기심 또는 지식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에 의해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을 의미한다 [20].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가치는 제품 선택 과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떠한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및 선택에 사회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며 건강 염려가 조절작용을 나타내고 [10], 소비가치가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19], 건강기능식품의 경제적 가치가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21]. 즉,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를 통해 제품 구매와 관련된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IT 분야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소비가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에 직무스트레스와 소비가치 등 개인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직장인의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을 통한 건강 증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실시되었다.

## 연구방법

### 연구대상 및 기간

경기지역에 소재한 IT 분야 연구소에서 재직 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단일 기관에서 2019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들은 본 설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 설문지를 통해 질문에 응답하였다. 전체 370부를 배부하여 356부 회수하였고, 이 중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340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계획 및 실행의 모든 과정은 숙명여자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SMWU-1905-HR-033)을 얻고 수행하였다.

### 연구내용

-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나이, 학력, 근무기간, 월 평균소득을 포함한 총 5문항을 조사하였다.
-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Chang 등 [22]이 한국인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고, 기본형과 단축형 중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등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역채점 문항 (3, 6-8, 10-11, 17-18, 20-24번 문항)은 역산하여 계산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평균 (표준편차)은 2.29 (0.80)점으로 나타났다. 집단 구분은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2.29점 미만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 2.29점 이상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질문지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0.86으로 나타났다.

-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은 Seol 등 [12]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총 16문항 중 6문항은 성분 및 효능 등 내재적 속성에 관련된 문항이며, 10문항은 포장 및 광고 등 외재적 속성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매우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에 대하여 하위항목 중 내재적 속성은 0.88, 외재적 속성은 0.83으로 나타났다.
-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는 Noh 등 [19]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실용성 및 안전성 등의 기능적 가치 3문항, 선물용 구입 등 특정 상황과 관련한 상황적 가치 3문항, 제품이 주는 이미지와 관련한 사회적 가치 3문항, 제품으로 인한 만족감 및 안정감 등의 감정적 가치 3문항, 호기심 및 차별화된 소비와 관련한 인지적 가치 3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에 대하여 하위항목 중 기능적 가치는 0.61, 상황적 가치는 0.67, 사회적 가치는 0.87, 감정적 가치는 0.84, 인지적 가치는 0.86이었다.

###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 (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각각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chi^2$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각각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별로 상관관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관계에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23]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회귀분석에 의한 매개효과검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제시된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 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 결과

###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력, 근속기간, 월 평균 소득으로 나누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대해 문항별 점수를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에 대해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에 대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data not shown).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 (2.29점 미만,  $n = 160$ ), 높은 집단 (2.29점 이상,  $n = 180$ )으로 분류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job stress level

Variable	Number (Total = 340)	Level of job stress		$\chi^2$ (p-value)
		Low (n = 160)	High (n = 180)	
Sex				0.011 (0.918)
Male	152 (44.7)	72 (45.0)	80 (44.4)	
Female	188 (55.3)	88 (55.0)	100 (55.6)	
Age (yrs)				7.062 (0.029*)
< 30	122 (35.9)	46 (28.7)	76 (42.2)	
≥ 30 to < 50	147 (43.2)	79 (49.4)	68 (37.8)	
≥ 50	71 (20.9)	35 (21.9)	36 (20.0)	
Level of education				0.358 (0.550)
Junior college graduate or below	88 (25.9)	39 (24.4)	49 (27.2)	
Undergraduates or above	252 (74.1)	121 (75.6)	131 (72.8)	
Length of service (yrs)				8.636 (0.013*)
< 5	165 (48.5)	68 (42.5)	97 (53.9)	
≥ 5 to < 20	104 (30.6)	48 (30.0)	56 (31.1)	
≥ 20	71 (20.9)	44 (27.5)	27 (15.0)	
Monthly income				15.625 (< 0.001***)
< KRW 2 million	55 (16.2)	21 (13.1)	34 (18.9)	
≥ KRW 2 million to < 3 million	128 (37.6)	47 (29.4)	81 (45.0)	
≥ KRW 3 million	157 (46.2)	92 (57.5)	65 (36.1)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p &lt; 0.05; \*\*\*p &lt; 0.00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면, 성별은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p = 0.918$ ). 만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의 비율은 35.9:43.2:20.9로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이 가장 많았고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 $p = 0.029$ ). 학력은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p = 0.550$ ). 근속경력 5년 미만, 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의 비율은 48.5:30.6:20.9로 5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근속경력 5년 미만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 $p = 0.013$ ).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의 비율은 16.2:37.6:46.2로 3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고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월 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 $p < 0.001$ ).

###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

연구 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2가지 하위요인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문항을 살펴보면, 내재적 속성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1번 문항)’ ( $p < 0.001$ ), ‘제품의 효능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번 문항)’ ( $p = 0.047$ )의 경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 속성의 문항들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와 직무스트레스 수준

연구 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와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5가지 하위요인 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문항을 살펴보면, 감정적 가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안정감은 중요하다 (3번 문항)’의 경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47$ ). 인지적 가치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 선택이 중요하다 (3번 문항)’의 경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Table 2.** Health functional food selection attributes according to job stress level<sup>1)</sup>

Variable	Level of job stress		t (p-value)
	Low (n = 160)	High (n = 180)	
<b>Intrinsic attributes</b>			
1.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considering the ingredients contained in the food.	4.39 ± 0.65	4.07 ± 0.72	4.484 (< 0.001***)
2.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considering the content of domestic ingredients and the country of origin.	3.98 ± 0.96	3.86 ± 0.82	1.183 (0.238)
3.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considering the efficacy of the food.	4.42 ± 0.72	4.27 ± 0.68	1.996 (0.047*)
4.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considering the scientific evidence of its efficacy.	3.98 ± 0.91	3.96 ± 0.82	0.274 (0.785)
5.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considering that the food is suitable for my constitution.	4.06 ± 0.90	3.93 ± 0.84	1.364 (0.173)
<b>Extrinsic attributes</b>			
6.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considering the design aspects of its packaging (color, material, etc.).	2.82 ± 1.07	2.87 ± 0.95	-0.485 (0.628)
7.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whose packaging is hygienic and safe.	4.09 ± 0.89	4.03 ± 0.78	0.601 (0.548)
8.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that is easy to store and carry.	3.84 ± 0.97	3.84 ± 0.72	-0.007 (0.994)
9.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that I can buy easily anytime.	3.67 ± 0.95	3.58 ± 0.76	0.970 (0.333)
10.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after listening to a customer consultant's professional explanation.	3.39 ± 1.03	3.38 ± 0.92	0.151 (0.880)
11.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considering the brand image of the concerned manufacturer and sales company.	3.74 ± 0.84	3.70 ± 0.88	0.402 (0.688)
12.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that is advertised in the media.	3.11 ± 0.96	3.16 ± 0.92	-0.484 (0.629)
13. I choose a lower priced one if the quantity is the same.	3.70 ± 0.97	3.65 ± 0.91	0.491 (0.624)
14. I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considering after-sales service such as exchange and refund.	3.33 ± 1.02	3.37 ± 0.95	-0.332 (0.740)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sup>1)</sup>The scores of the items regarding Health functional food selection attributes are assessed on a 5-point Likert scale, whereby the higher the score, the higher health functional food selection attributes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neutral, 4 = agree, 5 = strongly agree).

\*p < 0.05; \*\*\*p < 0.001.

**Table 3.**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ption values according to job stress level<sup>1)</sup>

Variable	Level of job stress		t (p-value)
	Low (n = 160)	High (n = 180)	
<b>Functional value</b>			
1. It is practical to consume health functional food.	3.87 ± 0.73	3.77 ± 0.73	1.293 (0.197)
2. A reasonable price of health functional food is important.	4.24 ± 0.64	4.11 ± 0.74	1.756 (0.080)
3. The safety of health functional food is important.	4.65 ± 0.60	4.53 ± 0.66	1.790 (0.074)
<b>Conditional value</b>			
1. I become more interested in health functional food when people around me or myself get sick.	4.17 ± 0.87	3.99 ± 0.85	1.931 (0.054)
2. I become more interested in health functional food during the holidays and sale times.	3.46 ± 0.98	3.37 ± 1.04	0.767 (0.444)
3. I think health functional food is fine for gifts.	3.84 ± 0.83	3.80 ± 0.76	0.435 (0.664)
<b>Social value</b>			
1. I think of people's reactions to consuming health functional food.	3.04 ± 1.22	2.98 ± 1.08	0.431 (0.667)
2. It is important to express my dignity by choosing health functional food.	2.46 ± 1.12	2.52 ± 1.06	-0.559 (0.576)
3. I consider that a health functional food is a good match for my group.	2.35 ± 1.15	2.55 ± 1.12	-1.626 (0.105)
<b>Emotional value</b>			
1. The pleasure of consuming health functional food I want is important.	3.43 ± 0.92	3.37 ± 0.96	0.569 (0.570)
2. I feel satisfied with health functional food.	3.44 ± 0.83	3.31 ± 0.90	1.468 (0.143)
3. It is important to feel safe consuming health functional food to stay healthy.	3.88 ± 0.80	3.70 ± 0.82	1.991 (0.047*)
<b>Epistemic value</b>			
1. I should buy health functional food that provokes my curiosity.	2.54 ± 0.95	2.67 ± 0.99	-1.167 (0.244)
2. I become fond of health functional food that is unique in design and packaging.	2.43 ± 0.97	2.60 ± 1.02	-1.561 (0.119)
3. It is important for me to choose a health functional food that differentiates me from others.	2.45 ± 1.01	2.69 ± 1.07	-2.107 (0.036*)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sup>1)</sup>The scores of the items regarding Health functional food selection attributes are assessed on a 5-point Likert scale, whereby the higher the score, the higher health functional food selection attributes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neutral, 4 = agree, 5 = strongly agree).

\*p < 0.05.

유의하게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36). 반면 기능적 가치, 상황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의 문항들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성개념들 간 상관관계 분석**

직무스트레스 수준,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하위요인과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종속변인인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하위요인 중 내재적 속성과 유의한 부 (-)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 $r = -0.113$ ;  $p < 0.05$ ), 매개변인인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하위요인 중 기능적 가치 ( $r = -0.134$ ;  $p < 0.05$ )와 감정적 가치 ( $r = -0.136$ ;  $p < 0.05$ )와도 유의한 부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내재적 속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기능적 가치 및 감정적 가치에 대한 욕구 또한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개변인인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와 종속변인인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선택속성 하위요인 중 내재적 속성은 소비가치 하위요인 기능적 가치 ( $r = 0.509$ ;  $p < 0.001$ ), 상황적 가치 ( $r = 0.394$ ;  $p < 0.001$ ), 사회적 가치 ( $r = 0.198$ ;  $p < 0.001$ ), 감정적 가치 ( $r = 0.400$ ;  $p < 0.001$ ), 인지적 가치 ( $r = 0.171$ ;  $p = 0.01$ )와 모두 정 (+)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능적 가치는 높은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선택속성 하위요인 중 외재적 속성은 소비가치 하위요인 기능적 가치 ( $r = 0.262$ ;  $p < 0.001$ ), 상황적 가치 ( $r = 0.347$ ;  $p < 0.001$ ), 사회적 가치 ( $r = 0.503$ ;  $p < 0.001$ ), 감정적 가치 ( $r = 0.426$ ;  $p < 0.001$ ), 인지적 가치 ( $r = 0.492$ ;  $p < 0.01$ )와 모두 정 (+)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 가치는 높은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성개념들 간 회귀분석**

직무스트레스 수준,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실시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하위요인 중 내재적 속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B = -0.225$ ;  $p = 0.038$ ), 내재적 속성에 대하여 1.3% ( $t = -2.086$ ;  $p = 0.038$ )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인 기능적 가치 ( $B = 0.648$ ;  $p < 0.001$ ), 상황적 가치 ( $B = 0.374$ ;  $p < 0.001$ ), 사회적 가치 ( $B = 0.130$ ;  $p < 0.001$ ), 감정적 가치 ( $B = 0.345$ ;  $p < 0.001$ ), 인지적 가치 ( $B = 0.126$ ;  $p < 0.001$ ) 모두 유의미하게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하위요인 중 내재적 속성을 예측하였으며, 내재적 속성에 대하여 각각 25.9% ( $t = 10.879$ ;  $p < 0.001$ ), 39.4% ( $t = 7.877$ ;  $p < 0.001$ ), 3.9% ( $t = 3.715$ ;  $p < 0.001$ ), 16.0% ( $t = 8.014$ ;  $p < 0.001$ ), 2.9% ( $t = 3.190$ ;  $p = 0.002$ )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하위요인인 기능적 가치 ( $B = 0.302$ ;  $p < 0.001$ ), 상황적 가치 ( $B = 0.299$ ;  $p < 0.001$ ), 사회적 가치 ( $B = 0.300$ ;  $p < 0.001$ ), 감정적 가치 ( $B = 0.333$ ;  $p < 0.001$ ), 인지적 가치 ( $B = 0.329$ ;  $p < 0.001$ ) 모두 유의미하게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하위요인 중 외재적 속성을 예측하였으며, 외재적 속성에 대하여 각각 6.8% ( $t = 4.983$ ;  $p < 0.001$ ), 12.1% ( $t = 6.811$ ;  $p < 0.001$ ), 25.3% ( $t = 10.699$ ;  $p < 0.001$ ), 18.2% ( $t = 8.660$ ;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constructs

Variable	Mean	SD	1	2	3	4	5	6	7	8
1. Job stress	2.29	0.33	1							
Selection attribute				1						
2. Intrinsic attribute	4.09	0.65	-0.113*							
3. Extrinsic attribute	3.51	0.59	-0.090	0.562***						
Consumption values					1					
4. Functional value	4.19	0.51	-0.134*	0.509***	0.262***					
5. Conditional value	3.77	0.69	-0.084	0.394***	0.347***	0.420***				
6. Social value	2.65	0.99	-0.001	0.198***	0.503***	-0.004	0.360***			
7. Emotional value	3.52	0.76	-0.136*	0.400***	0.426***	0.374***	0.521***	0.428***		
8. Epistemic value	2.57	0.89	0.007	0.171**	0.492***	-0.005	0.311***	0.616***	0.470***	

\* $p < 0.05$ ; \*\* $p < 0.01$ ; \*\*\* $p < 0.001$ .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job stress level, health functional food selection attributes, and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ption value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beta$	R <sup>2</sup>	t (p-value)
Job stress level	Intrinsic attribute	-0.225	0.108	-0.113	0.013	-2.086 (0.038*)
	Extrinsic attribute	-0.162	0.098	-0.090	0.008	-1.655 (0.099)
<b>Consumption value</b>						
Functional value	Intrinsic attribute	0.648	0.060	0.509	0.259	10.879 (< 0.001***)
		0.374	0.047	0.155	0.394	7.877 (< 0.001***)
Social value		0.130	0.035	0.198	0.039	3.715 (< 0.001***)
Emotional value		0.345	0.043	0.400	0.160	8.014 (< 0.001***)
Epistemic value		0.126	0.040	0.171	0.029	3.190 (0.002**)
Functional value	Extrinsic attribute	0.302	0.061	0.262	0.068	4.983 (< 0.001***)
		0.299	0.044	0.347	0.121	6.811 (< 0.001***)
Social value		0.300	0.028	0.503	0.253	10.699 (< 0.001***)
Emotional value		0.333	0.038	0.426	0.182	8.660 (< 0.001***)
Epistemic value		0.329	0.032	0.492	0.242	10.386 (< 0.001***)
Job stress level	Functional value	-0.210	0.084	-0.134	0.018	-2.489 (0.013*)
	Conditional value	-0.177	0.114	-0.084	0.007	-1.550 (0.122)
	Social value	-0.002	0.165	-0.001	0.000	-0.010 (0.992)
	Emotional value	-0.314	0.125	-0.136	0.018	-2.515 (0.012*)
	Epistemic value	0.020	0.147	0.007	0.000	0.136 (0.892)

\*p < 0.05; \*\*p < 0.01; \*\*\*p < 0.001.

p < 0.001), 24.2% (t = 10.386; p < 0.00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하위요인 중 기능적 가치 (B = -0.210; p = 0.013), 감정적 가치 (B = -0.314; p = 0.012)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1.8% (t = -2.489; p = 0.013), 1.8% (t = -2.515; p = 0.01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반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건강기능식품 하위요인 중 상황적 가치 (p = 0.122), 사회적 가치 (p = 0.992), 인지적 가치 (p = 0.892)에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하위요인 중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에 대해 매개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중 기능적 가치 및 감정적 가치 변인의 매개효과**

매개회귀분석 중 기능적 가치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1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기능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 $\beta = -0.134$ ; p = 0.013), 2단계에서 기능적 가치는 내재적 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 $\beta = 0.509$ ; p < 0.001), 3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내재적 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beta = -0.113$ ; p = 0.038). 마지막으로 4단계를 검증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기능적 가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내재적 속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능적 가치를

**Table 6.** Mediating effect of functional value subscale of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ption value

Step	Explanatory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p-value)
Step 1	Stress level	→	Functional value	-0.210	0.084	-0.134	-2.489 (0.013*)
							F (p-value) = 6.193 (0.013*) R <sup>2</sup> (adj-R <sup>2</sup> ) = 0.018 (0.015)
Step 2	Functional value	→	Intrinsic attribute	0.648	0.060	0.509	10.879 (< 0.001***)
							F (p-value) = 118.345 (< 0.001***) R <sup>2</sup> (adj-R <sup>2</sup> ) = 0.259 (0.257)
Step 3	Stress level	→	Intrinsic level	-0.225	0.108	-0.113	-2.086 (0.038*)
							F (p-value) = 4.352 (0.038*) R <sup>2</sup> (adj-R <sup>2</sup> ) = 0.013 (0.010)
Step 4	Stress level	→	Intrinsic attribute	-0.090	0.094	-0.045	-0.958 (0.339)
			Functional value	0.641	0.060	0.503	10.651 (< 0.001***)
						F (p-value) = 59.617 (< 0.001***) R <sup>2</sup> (adj-R <sup>2</sup> ) = 0.261 (0.257)	

\*p < 0.05; \*\*\*p < 0.001.



추가하였을 때, 내재적 속성의 설명력 ( $R^2$ )은 26.1%로서 3단계에 비해 전체 설명력이 24.8% 증가하였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F = 59.617$ ;  $p < 0.001$ ). 또한 이 과정에서 기능적 가치는 내재적 속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 $\beta = 0.503$ ;  $p < 0.001$ ), 3단계에서 유의했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내재적 속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 $\beta = -0.045$ ;  $p = 0.339$ ). 따라서 기능적 가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내재적 속성을 완전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내재적 속성의 직접효과는 없고, 기능적 가치를 매개로 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Z = -2.434$ ;  $p < 0.05$ ). 따라서 Fig. 1A와 같이 기능적 가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내재적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회귀분석 중 감정적 가치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1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감정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 $\beta = -0.136$ ;  $p = 0.012$ ), 2단계에서 감정적 가치는 내재적 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 $\beta = 0.400$ ;  $p < 0.001$ ), 3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내재적 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beta = -0.113$ ;  $p = 0.038$ ). 마지막으로 4단계를 검증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감정적 가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내재적 속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감정적 가치를 추가하였을 때, 내재적 속성의 설명력 ( $R^2$ )은 16.3%로서 3단계에 비해 전체 설명력이 15.0% 증가하였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F = 32.857$ ;  $p < 0.001$ ). 또한 이 과정에서 감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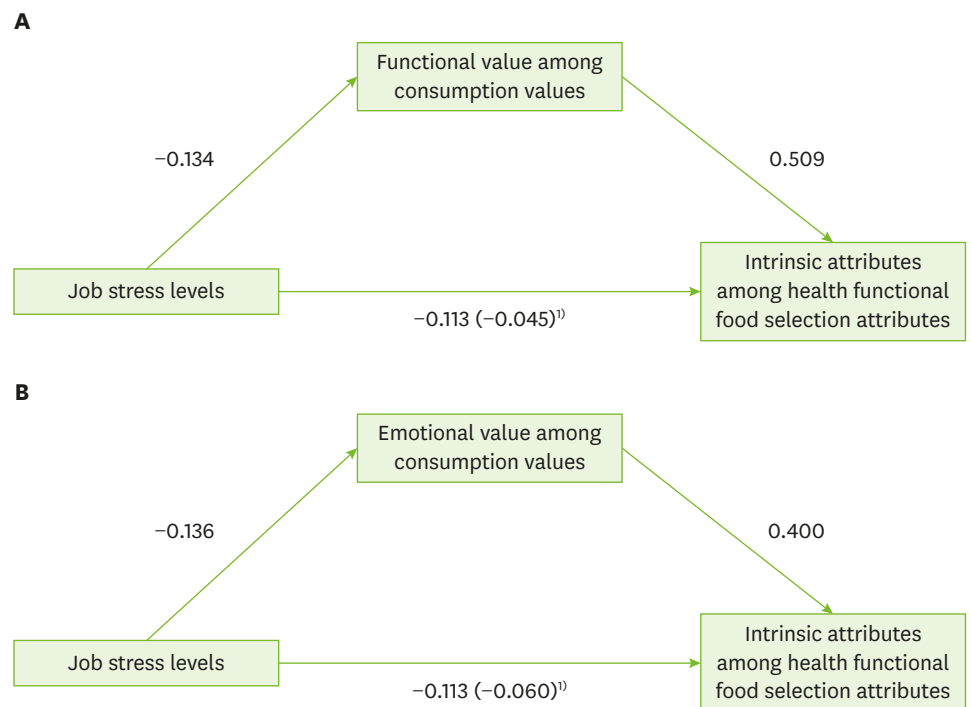


Fig. 1. The mediating effect models for consumption values on the path from the job stress levels (predictor) to the intrinsic attributes among health functional food selection attributes (outcome). (A) Functional value subscale of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ption value; (B) Emotional value subscale of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ption value.

<sup>1)</sup>Indicates the path coefficient when controlled by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e value (mediator).

**Table 7.**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value subscale of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ption value

Step	Explanatory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value)
Step 1	Stress level	→	Emotional value	-0.314	0.125	-0.136	-2.515 (0.012*)
							F (p-value) = 6.327 (0.012*) R <sup>2</sup> (adj-R <sup>2</sup> ) = 0.018 (0.015)
Step 2	Emotional value	→	Intrinsic attribute	0.345	0.043	0.400	8.014 (< 0.001***)
							F (p-value) = 64.229 (< 0.001***) R <sup>2</sup> (adj-R <sup>2</sup> ) = 0.160 (0.157)
Step 3	Stress level	→	Intrinsic attribute	-0.225	0.108	-0.113	-2.086 (0.038*)
							F (p-value) = 4.352 (0.038*) R <sup>2</sup> (adj-R <sup>2</sup> ) = 0.013 (0.010)
Step 4	Stress level	→	Intrinsic attribute	-0.119	0.100	-0.060	-1.187 (0.236)
	Emotional value	→	Intrinsic attribute	0.338	0.043	0.392	7.784 (< 0.001***)
						F (p-value) = 32.857 (< 0.001***) R <sup>2</sup> (adj-R <sup>2</sup> ) = 0.163 (0.158)	

\*p < 0.05; \*\*\*p < 0.001.

가치는 내재적 속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 $\beta = 0.392$ ;  $p < 0.001$ ), 3단계에서 유의했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내재적 속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 $\beta = -0.060$ ;  $p = 0.236$ ). 따라서 감정적 가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내재적 속성을 완전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내재적 속성의 직접효과는 없고, 감정적 가치를 매개로 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Z = -2.393$ ;  $p < 0.05$ ). 따라서 Fig. 1B와 같이 감정적 가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내재적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고찰

본 연구는 경기지역의 IT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소비가치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직장인들의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을 통한 건강 증진의 필요성을 시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및 소득수준 300만원 이상인 경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근속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IT 분야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4,25]. 또한 비IT산업체와 IT산업체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IT산업체 근로자의 경우 업무에 비해 낮은 처우 등에 의하여 경력이 3년 미만일 때 특히 근속비율이 낮으며, 나이가 들수록 좁아지는 입지로 인해 40세 이상인 근로자의 비율이 낮다고 보고되었다 [26].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을 미루어 볼 때, IT 분야 직장인의 근무환경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직무스트레스가 건강기능식품 섭취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문항별로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효능을 고려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살펴본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을 함께 살펴볼 때, 만 30세 미만이거나 근속경력이 짧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중 성분과 효능을 고려하는 경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의 성분과 기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섭취해야 영양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관심도가 작은 대상자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내재적 속성인 성분과 효능은 건강기능식품의 본질적인 목적과 가장 밀접한 선택속성으로, 이는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가 클수록 건강 관련 생활습관의 실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함께 미루어 볼 때 [27],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건강지향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문항별로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감정적 가치 측면에서 건강기능식품 복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음주 및 흡연량이 많아진다고 보고된 선행연구와 함께 스트레스 정도와 건강지향적 행동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 [28]. 또한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를 함께 미루어 볼 때,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이거나 소득수준이 높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며 감정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이 물질적으로 여유로우수록 제품 소비에 있어서 이를 통해 획득하는 감정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주관적인 만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보고된 바 있다 [29]. 감정적 가치는 다른 소비가치에 비해 소비자의 정보처리과정보다 경험 및 감정과 관련이 높는데 [19], 감정적 가치에 치중될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때에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비판적인 사고를 갖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인지적 가치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대한 욕구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놓여 있을 때 물질의 소유를 통해 해소하려 하며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보상소비성향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30],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기능식품 소비 시에 건강기능식품의 본질적인 기능에 주목하기보다 타인과 차별화된 제품을 찾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구성개념 (직무스트레스 수준,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하위요인 중 내재적 속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하위요인 중 기능적 가치 및 감정적 가치와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포장 디자인 및 브랜드 이미지 등의 외재적 속성보다 성분 및 효능 등의 내재적 속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기능적 가치 및 감정적 가치에 대한 욕구 또한 커진다는 결과이다. 선택속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식품을 선택할 때에 내재적 속성 측면의 품질보다 외재적 속성 측면의 포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31]. 또한 소비가치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젊은 연령일수록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2], 소비가치가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능적 가치가 높을수록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33]. 본 연구에서 30세 미만의 연구 대상자가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인지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IT 분야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능적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는 소비자 교육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중 내재적 속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 모두 유의한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건강기능식품의 내재적 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중 기능적 가치 및 감정적 가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스트레스의 개선을 돕는 것도 내재적 속성을 고려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재방법이 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소비가치란 행동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으로써 학습을 통해 얻어지고 수정될 수 있으므로 [34],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수단-목적 사슬이론에서도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의해 결정하며, 제품에 관해 제품속성과 제품사용의 결과 및 제품 사용을 통해 강화되는 가치 세 가지 수준의 지식을 가진다고 하였다 [35,36]. 현재 사업장에서 직장인의 건강과 관련 교육은 보편화되지 못했으며 형식적인 수준이므로 [37],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직장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지식 습득과 소비가치 확립을 통해 바람직한 건강기능식품 선택행동을 하도록 하고, 나아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범위에 있어 경기지역의 한 IT 분야 연구소에 국한되어 있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 IT 분야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관계에 대한 소비가치의 매개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및 보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요약

본 연구는 경기지역의 IT 분야 직장인 340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수준,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소비가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일반적 특성,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소비가치의 차이를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와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관계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과 관련하여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제품의 성분, 효능의 내재적 속성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와 관련하여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건강기능식품 복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안정감의 감정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 선택이 중요하다는 인지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중 내재적 속성,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중 감정적 가치 및 가격, 실용성 및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적 가치 ( $p = -0.134$ )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내재적 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기

능식품 선택속성의 관계에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중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분야 직장인들은 직업적 특성 상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을 통해 효과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소비가치는 소비자의 사고 및 행위를 이끄는 판단기준의 집합으로, 교육 대상자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제품이 주는 이미지보다는 성분과 효능 및 안전성 등에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REFERENCES

1.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R). Laws of health functional food [Internet]. Cheongju: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 [cited 2019 Oct 3].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1%B4%EA%B0%95%EA%B8%B0%EB%8A%A5%EC%8B%9D%ED%92%88&x=0&y=0>.
2. Kim HK.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nutraceuticals. *Food Ind Nutr* 2004; 9(1): 1-14.
3. Baek EY, Jeong WY. Determinants of health oriented consumption. *Consumption Cult Study* 2006; 9(2): 25-48.
4. Lee SJ, Kim SH. Consump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s and related factors in male workers in Gyeongnam. *J East Asian Soc Diet Life* 2014; 24(5): 604-613.  
**CROSSREF**
5. Hong YH, Lee EH, Lim HS, Chyun JH. Dietary habits and the perception and intake of health functional foods in male office workers by age. *J East Asian Soc Diet Life* 2015; 25(2): 340-351.  
**CROSSREF**
6. Jun BH, Lee HG. An investigation of the intake of the health food among the salary men in Seoul. *Korean J Soc Food Sci* 2000; 16(1): 9-16.
7. Ohn J, Kim JH. Intake pattern and needs assessment for the development of web-contents on health functional foods according to age of adults. *Korean J Community Nutr* 2012; 17(1): 26-37.  
**CROSSREF**
8. Kim HC, Kim MR. A study on health-functional foods intake pattern of consumers in Busan and Gyeongnam region. *J Korean Living Sci Assoc* 2006; 15(2): 341-352.
9. Kim MR, Lim MK. A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intake and non-intake respondents of health foods, and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willingness to consume health foods in Busan and Gyeongnam region. *J East Asian Soc Diet Life* 2007; 17(6): 798-807.
10. Cha MH, Kim YK. Moderating effect of health motivation, health concern and food involv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value and purchasing intentions of healthy functional food. *J Korean Soc Food Sci Nutr* 2008; 37(11): 1435-1442.  
**CROSSREF**
11. Kim JH, Lee MJ, Yang IS, Moon SJ.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Korean eating behavior. *Korean J Diet Cult* 1992; 7(1): 1-8.
12. Seol SC, Park WJ, Woo SK. A study on the analysis of differences made by characteristics, selection attributes and consumption behavior based on types of consumers of health functional foods. *J Tourism Leis Res* 2014; 26(1): 463-482.
13. Yoon GS, Kim SY. Influences of job stress and burnout on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010; 16(4): 507-516.  
**CROSSREF**
14. Jarczok MN, Jarczok M, Mauss D, Koenig J, Li J, Herr RM, et al. Autonomic nervous system activity and workplace stressors--a systematic review. *Neurosci Biobehav Rev* 2013; 37(8): 1810-1823.  
**PUBMED | CROSSREF**
15. Ahn KY. A study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responses and occupational accident/illness. *J Korea Saf Manag Sci* 2008; 10(4): 57-63.
16. Hahn DW, Lee SW. Organization-level determinants of job stress and physical illness in Information Technology (IT) industry. *Korean J Health Psychol* 2002; 7(3): 369-389.

17. Keeney RL, Raiffa H. Decisions with multiple objectives: preferences and value tradeoff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18. Lee MS, Kim S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group lifestyle and selection attributes in the health functional foods. *Korean J Clin Pharm* 2015; 25(4): 286-295.
19. Noh WH, Ahn SH, Yang LL, Song YW. The influence of consumption value towards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perceived by Chinese consumers in the context of healthy functional foods. *Korean-Chinese Soc Sci Stud* 2012; 10(2): 179-206.
20. Sheth JN, Newman BI, Gross BL. Why we buy what we buy: a theory of consumption values. *J Bus Res* 1991; 22(2): 159-170.  
**CROSSREF**
21. Kim SJ, Son IC. An empirical study on purchasing behavior of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ers. *Glob Bus Adm Rev* 2006; 3(1): 1-19.
22. Chang SJ, Koh SB, Kang D, Kim SA, Kang MG, Lee CG, et al.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Ann Occup Environ Med* 2005; 17(4): 297-317.  
**CROSSREF**
23.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 Pers Soc Psychol* 1986; 51(6): 1173-1182.  
**PUBMED | CROSSREF**
24. Jung HS, Jhang WG, Choi EH. Health habits and job stress among IT workers according to employment type.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17; 27(4): 371-379.
25. Lee CH, Lee EJ, Ro SO. A survey on the consumer attitude toward health food in Korea (2): consumer perception on health and food habit. *Korean J Diet Cult* 1996; 11(4): 487-495.
26. Moon TE. Research on the workers' awareness and the status of the current working conditions in domestic IT and non-IT industries. *J Digit Policy Manag* 2012; 10(9): 225-238.
27. Park EY, Park HC, Park KS, Son SJ.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health behaviors practice. *J Korean Acad Fam Med* 2000; 21(11): 1436-1450.
28. Oh JK. Structural modeling of stress, life style and health status in industrial employees. *Korean J Occup Environ Med* 2000; 12(1): 26-40.  
**CROSSREF**
29. Kim YS, Lee KO, Kim MJ. A study in the propensity for symbolic consumption of adolescents. *J Korean Living Sci Assoc* 2005; 14(2): 277-292.
30. Lee KM. Influence of self-esteem and daily hassles on the compensatory consumption behavior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09.
31. Kim N, Park YI, Joo N. Structural relations of convenience-processed food purchasing attitude and selection attribute according to housewives' stress: focus on housewives in Seoul and Gyeonggi Areas. *J Korean Diet Assoc* 2019; 25(4): 257-268.
32. Won JH, Chung JE. The segmenta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based on Sheth's theory of consumption values. *J Consum Stud* 2015; 26(1): 73-99.
33. Nam SJ.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consumption values on the consumption self-regulation. *Consumption Cult Study* 2007; 10(3): 59-86.  
**CROSSREF**
34. Kim DW. A study on consumption values: focused on market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4.
35. Reynolds TJ, Gutman J. Advertising is image management. *J Advert Res* 1984; 24(1): 27-36.
36. Peter JP, Olson JC.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strategy. Boston (MA): McGraw-Hill; 1999.
37. Park CI, Lee KS, Kim JA, Koo JW, Yim HW, Ahn BY, et al. Need assessment for developing of health promotion program in a computer company. *Korean J Occup Health* 1997; 36(4): 125-136.